

이케다 SGI 회장 강의 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중에서

- ❖ 스슌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 (상)에서 발취
- ❖ 스슌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 (중)에서 발취
- ❖ 스슌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 (하)에서 발취

스순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상) (삼종재보(三種財寶)어서)

‘사람의 행동’이 불법(佛法)의 진수

본문 스순천황어서 1170 쪽 1 행~2 행

흰옷 한 벌, 엽전(葉錢) 일관(一貫) 또 도키전(富木殿)의 서신(書信)과 또한 무엇보다도 감, 배, 생해초(生海草), 간해초(乾海草) 등, 갖가지의 물품(物品)을 받았으며 물품들을 사자(使者)로부터 받았소이다.

현대어역

보내주신 흰 옷 한 벌과 엽전 일관 또 도키전의 편지와 무엇보다도 감, 배, 생톳,건톳 등 갖가지 물품을 심부름하는 분에게서 받았습니니다.

‘성의’ ‘성실’이 역경을 극복하는 도약대로

어서에 나오는 “대난(大難)이 비가 오듯 쏟아진다.” (어서 1136 쪽, 취의)라는 표현처럼 당시 시조강고는 참으로 어렵고 괴로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조강고는 이 어서를 받기 3년 전에 주군인 에마 씨를 절복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주군이 시조강고를 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동료들의 참언과 험담이 잇달았고, 목숨까지 노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지교체라는 내명(內命)이 내리는 등 가신으로서 불우한 일이 이어졌지만 시조강고는 스승의 자상한 지도를 지키며 끈질기게 신심을 관철했습니다. 그런데 시조강고는 1277년 6월, 구와가야쓰문답을 빌미로 한 누명을 쓰고 소령을 몰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군이 “법화경을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소령을 몰수하겠다.”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시조강고는 망설이지 않고 신심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그 결심을 적은 서약서를 스승으로 받드는 대성인에게 보냈습니다. 대성인도 전광석화(電光石火) 같은 속도로 답신을 보내셨습니다. 그 답신에 “일생은 꿈 속과 같으며, 명일(明日)을 기(期)할 수 없도다. 어떠한 절인(乞人)이 된다 해도, 법화경에 흠을 내드리지 말지어다.” (어서 1163 쪽)라는 유명한 지도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대성인이 시조강고에게 사중일관 강조하신 지도는 “아침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침’은 궁지 드높은 자기 혼을 파괴하는 일로 통합니다. 하물며 겁쟁이가 되어 마성에 아침한다면 자신의 불성(佛性)을 용현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마의 작용에는 의연히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인간 왕자(王者)와 같은 당당한 행동 앞에서 마는 반드시 물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사자왕의 위대한 사자후 앞에서 야간(野干, 여우종류)은 도망쳐버리고, 태양빛 앞에서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는 일과 같습니다.

조금도 아침하지 말고, 위풍당당하게 살자! 대성인은 그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이 빛난다고 거듭해서 문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시조강고의 훌륭한 행상은 스승을 구도하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똑바르게 나아간 점에 있었습니다.

시조강고는 ‘사제불이(師弟不二)’의 마음으로 싸웠기 때문에 크게 승리했습니다. ‘사제’가 바로 광포와 인생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입니다. 또 이 원리는 영원히 변함없는 불법(佛法)의 방정식입니다.

시조강고가 지도대로 “법화경에 흠을 내면 안 된다.” “아침하면 안 된다.” 라는 굳은 결심으로 ‘사제의 갈’을 걸었을 때, 상황은 크게 변합니다. 주군 에마 씨가 중병에 걸려, 의술에 능통한 시조강고가 간호와 치료를 맡았습니다. 참으로 주군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소령을 몰수당할 위기를 맞은 지, 불과 수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주군과 시조강고의 관계에 상황이 호전될 전기(轉機)가 찾아왔다고 해도 진정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덧붙여 시조강고를 둘러싼 힘든 환경은 변함없었으며 동료들과 생긴 불화도, 또 틀어진 형제사이드도 당장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배후에 고쿠리쿠사(極樂寺) 료킨(良禪) 일파의 음모도 이어졌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크게 움직이고 호전할 기미가 보일 때일수록 더욱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이상으로 주위에 두루 마음을 쓰고 한 인간으로서 현명한 ‘행동’으로 승리를 결정지어야 합니다.

이렇듯 이 어서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기본을 가르쳐 주신 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지 앞부분에서는 공양에 대한 감사 인사를 쓰셨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아 시조강고가 대성인에게 여러 가지로 진심 어린 공양을 했으며 더욱이 동자에게 부탁받은 편지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노부의 깊은 산 속에서 곧 겨울을 맞는 대성인의 건강을 염려해 공양물이 이것저것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대성인은 분명히 받았다는 고마움을 “무엇보다도” “갖가지의 물품”이라고 쓰며 시조강고의 진심에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렇듯 표현 하나하나에서도 대성인과 시조강고

두 사람의 사제시간에 얽힌 마음의 교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서는 시조깡고의 근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 생활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 관점에서 매우 자세히 지도하셨습니다. 그 지도에서 대성인은 “주군이 귀하를 의지하는 일은 법화경의 가호가 아닙니까?” (어서 1172 쪽, 취의) 하고 시조깡고가 거둔 신앙의 승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시조깡고가 주위에서 한층 더 질투당하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게 될 일을 염려하며 마음을 다잡고 몸을 조심하도록, 또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훈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성살을 관철하는 인간적인 승리가 모든 상황을 타개하는 핵심임을 밝히셨습니다. 이 어서에서는 수많은 동지가 마음의 지주로 삼은 금언이 곳곳에서 빛납니다. “곳간의 재(財)보다도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제일이다.”(어서 1173 쪽) “교주석존의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는 사람의 행동에 있었소이다.”(어서 1174 쪽) “현명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畜)이라 하느니라.”(어서 1174 쪽)

어느 금언도 고난과 싸우는 시조깡고에게, 역경을 타개하는 열쇠는 어디까지나 현명한 행동과 인간성에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조깡고에게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기 행동이 그대로 신심의 증명이고, 불법승부의 결론입니다.

이 <스승천황어사> 한 구절 한 구절에는 무엇보다 온 마음을 다해 문하를 격려하시는 니치렌대성인의 깊은 자애가 담겼습니다. 인간을 키운다, 인재를 육성한다, 불법자(佛法者)로서 이보다 더한 ‘사람의 행동은 없습니다.

창립의 아버지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이 어느 청년 교육자를 격려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지방 출신이라 ‘사투라가 신경쓰여 남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스승천황어사 1170 쪽 2 행~7 행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군(主君)의 병환(病患)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노라. 설령 주군은 법화경(法華經)을 믿고 있지 않은 듯하지만, 귀하(貴下)는 그 자내(邸內)에 있으면서 그 은혜(恩惠)의 덕분으로 법화경을 공양(供養)해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주군을 위한 기원(祈願)으로 되리라. 대목(大木)아래의 소목(小木), 큰 강가의 풀은 직접(直接) 그 비를 맞지 않고, 그 물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슬이 전(傳)해지고 수분(水分)을 얻어 무성(茂盛)하는 것이외다. 이도 그와 같도다. 아사세왕은 부처의 원적(源積)이지만, 그 궁내(宮內)에 있던 가바대신(耆婆大神)이 부처에게 뜻이 있어서 항상 공양을 했기 때문에 그 공덕(功德)이 대왕(大王)에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보입니다.

현대어역

그런데 무엇보다도 주군(에마 씨)의 병환을 몹시 걱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주군은 법화경을 신앙하지 않은 듯할지라도, 귀하가 에마 집안에 있으면서 그 주군의 은혜 덕분에 법화경에 공양하고 있으므로, 그것은 그대로 주군의 기원이 될 것입니다. 큰 나무 밑의 작은 나무와 큰 강가의 풀은 직접 비를 맞지 않아 물에 닿지 못해도 이슬이 전해져 생기를 얻어 무성해지는 법입니다. 귀하와 주군의 일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아사세왕은 석가불의 적이었지만, 그 신하인 가바대신이 석가를 믿고 항상 공양했으므로 그 공덕이 아사세왕에게 돌아갔다고 설합니다.

‘은인’에게 보답하는 현지의 생활태도

시조깡고는 아버지 대부터 가미쿠라 막부의 싯켄(執權)집정 직에 있던 호조 일문인 에마 씨를 섬겼습니다. 주군 집안이 위급한 일에 처했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 2대가 충성을 다했으므로, 본디 에마 씨가 시조깡고를 얼마나 깊이 신뢰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군을 절복한 일을 계기로 에마 씨가 시조깡고를 멀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조깡고는 소령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등 부당한 일이 계속 일어나자, 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일으킬 생각까지 한 듯합니다.

대성인은 그럴 생각임을 밝힌 시조깡고에게 “(에마 씨는) 귀하든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저마다 가신(家田)으로서 큰 은혜를 입은 주군이다.” (어서 1150 쪽, 통해), “이처럼 큰 은혜를 입은만큼, 설령 앞으로는 은혜를 조금도 입지 않을지라도 주군을 원망하면 안 된다.”(어서 1151 쪽, 통해) 라고 자제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배은망덕은 가장 ‘사람의 행동에 위배되는 악업(惡業)입니다. 원망해야 할 대상은 자기에게 직접 압박을 가하는 주군이 아니다. 주군의 생명을 움직이는 삼장사마(三障四魔)의 작용이 바로 싸워야 할 상대다.

게다가 주군의 배후에서 대성인 문하를 박해하고자 획책하고 주군을 속이며 어둠속에서 날뛰는 고쿠리쿠사 료칸이 바로 가책해야 할 참성증상민(瞋覺增上慢)이므로 장마(障魔)의 정체를 결코 잘못 보면 안 된다고 훈계하셨습니다.

시조깡고는 대성인 말씀대로 성심성의를 다해 현자(賢者)의 생활태도를 관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마 씨는 본인이 병에 걸리자 “명의(名醫)” (어서 985 쪽)인 시조깡고를 의지한 것입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에마 씨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 주군(에마 씨)의 병환을 깊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에마 씨는 법화경 행자인 시조깡고를 괴롭히는 장본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성인은 에마 씨의 병환을 진심으로 염려하셨습니다.

니치렌불법은 ‘밥의 정사(正邪)에는 엄격한 태도를 관철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고뇌에는 철저히 관용과 자비의 정신을 관철합니다. 대성인은 “가련하도다.” “한심스럽다.”라고, 설령 상대가 방범(防犯)의 중생일지라도 고뇌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구해주고 싶어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만중의 한탄에 “흉역(胸臆)에 분비(憤排)” (어서 17 쪽)하는 분이셨습니다. 어디까지나 한 사람 한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점에 불법의 진수가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도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얼마나 기없는 일인가.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하다.”라고 깊이 한탄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창기확회는 ‘어디까지나 인간 속으로’라는 이 위대한 정신과 행동을 계승했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빛나는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대성인은 설령 주군이 법화경을 신

양하지 않더라도 시조고개가 법화경에 공양할 수 있는 까닭은 주군의 은혜 덕분이므로, 주군에게도 공덕선근이 미친다고 거듭 가르치셨습니다. 큰 나무 아래 작은 나무를 비롯해 큰 강가의 풀은 직접 비를 맞지 않고 물에 닿는 일이 없어도 이슬이 자연스럽게 전해져 생기를 얻어 무성해집니다. 석존의 시대도 불법에 적대한 아사세왕에게 석존에게 귀의한 기바대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아사세왕이 수호를 받았습니다. 가정에서도 ‘한 사람이 묘법의 빛을 발함으로써 미입회 가족까지 감쌀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직장과 지역사회도 비출 수 있습니다. 묘법의 공력(功力)은 그 정도로 광대무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하는 데 중요한 점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자기가 ‘거막이 되고 ‘대야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문 스승천황에서 1170 쪽7 행~1171 쪽2 행

불법(佛法) 중(中)에 내훈외호(內薰外護)라고 하는 커다란 대사(大事)가 있으니 종론(宗論)이다. 법화경(法華經)에는 “나는 깊이 그대들을 존경(尊敬)하노라.” 열반경(涅槃經)에는 “일체중생(一切衆生)은 모두 불성(佛性)이 있음.” 마명보살(妙鳴菩薩)의 기신론(起信論)에는 “진여(眞如)의 법(法)이 항상 훈습(薰習)하기 때문에 망심(妄心)이 즉멸(卽滅)하여 법신현현(法身顯現)함이라.” 마륜보살(彌勒菩薩)의 유가론(瑜伽論)에 쓰여 있느니라. 숨은 일이 밖으로 나타난 덕(德)으로 된 것이오.

현대어역

불법 중에 대단히 중요한 ‘내훈외호라는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은 불법의 핵심입니다. 법화경에는 “나는 깊이 여러분을 존경합니다.”라고, 열반경에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성이 있다.”라고, 마명보살의 <기신론>에는 “진여의 법이 항상 훈습하므로 망심이 바로 멀고, 법신이 나타납니다.”라고 설하며 마륜보살의 <유가론>에도 설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이 뚜렷하게 나타난 덕이 됩니다.

‘내훈외호’를 실천해 경애를 얻다

여기에서 대성인은 ‘내훈외호’라는, 불법에서 매우 중요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내훈외호는 일체중생의 생명에 내재하는 불성이 안에서 훈발(薰發)해 밖에서 자기를 지키고 돕는 작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불성(佛性)이라 해도, 그 불성을 갖추고 불러 깨우는 존재는 바로 자기입니다. 묘법을 실천함으로써 훈습, 즉 향을 피우면 좋은 냄새가 옷에 배듯 불성이 훈발합니다. 향기가 감돌듯 자신의 불성이 나타납니다. 제천의 수호라 해도 자신이 생명을 변혁하는 일이 그 첫걸음입니다. (중략)

어본존을 향해 창제하는 일은 곧 만물과 기슭에 갖춰진 불성을 불러 나타내고 찬탄하는 일과 같은 뜻입니다. 즉 자신의 불성을 나타내는 창제의 음성에 응해 온 우주의 제천신신도 움직이고, 우리 생명을 지킨다는 이 법리에는 다른 타력본원적(他力本願적) 신인과 분명히 구분되는 니치렌불법의 특질이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훈(內薰)은 내발(內發)하는 힘입니다. 부처의 생명이라 해도 그것을 밖에서 구한다면 내도(內道)의 가르침인 불법이 아닙니다. 번뇌에 미혹하고, 생사의 괴로움을 겪는 자기 안에 바로 부처의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는 생명이 엄연히 갖춰졌습니다.

니치렌불법은 그 공덕을 현실적으로 내 생명에서 불러 나타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부처의 성분을 갖추었기 때문에, 알נם을 정해 기원함으로써 부처의 생명이 “부르고 불러서” 나타납니다. 자신이 불계를 훈발하고 있으므로 밖에서 수호가 나타나며 모두 자기 알נם으로 결정됩니다.

이 ‘내훈외호’라는 법리에 비추면, 어떤 환경도 알נם을 변혁하고 자신의 불성을 훈발함으로써 반드시 변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인생 드라마의 각본을 쓰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라고 확신한 순간부터 두려움 따위는 모두 사라집니다.

대성인은 이어서 “숨은 일이 밖으로 나타난 덕(德)으로 된 것이오.”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덕이 뚜렷하게 나타난 덕이 된다.” 다시 말해 묘법을 실천하는 일 자체가 승리의 도정(道程)을 걷는 것이며, 모든 덕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깊고 강하게 확신하며 나아갈 때, 예상도 하지 못한 형태로 미래가 크게 열립니다. 그것이 어본존의 확신이며 딱 잘라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실제로 학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대경애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을 실천하는 왕자(王者)가 바로 우리 학회원입니다. 법화경의 민인존경 사상이 참으로 훈습하듯 학회원의 생활태도에 구석구석 스미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그냥 내버려두지 못합니다. 걱정되는 사람을 보면 격려하지 않고는 그냥 있지 못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버려두지 않고 껴안아줍니다. 상대방의 가능성을 믿고 선한 유대를 깊게 합니다.

바로 우리 학회원은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을 체현하고 체득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곧 부처와 보살의 생명이 훈습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뛰어난 공덕은 없습니다. 그곳에 행복의 훈풍이 한없이 펼쳐집니다. 학회원은 서민의 영웅입니다. 위대한 생명의 왕자입니다. ■

스순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중) (삼종재보(三種財寶)어서)

‘한사람을 소중히’- 그 점에 불법자(佛法者)의 행동이!

본문 스순천황어서 1171 쪽9 행~11 행

귀하(貴下)는 분명히 성급(性急)한 상(相)이 얼굴에 나타났느니라. 아무리 대사(大事)라고 생각되어도 성급한 자(者)를 제천(諸天)은 수호(守護)하지 않는다고 아사라. 귀하가 남에게 살해(殺害)를 당하게 된다면, 설령 부처가 되신다 해도, 그들이 기뻐할 것이고, 이 쪽은 한탄(恨歎)할 것이니 분(憤)할 것이니라.

[현대어역]

귀하는 확실히 성급한 인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제천은 성미가 급한 사람을 지키시지 않음을 알기 바랍니다. 귀하가 남에게 해를 당한다면, 설령 성불이 되었다고 해도 적들에게는 기쁜 일이고, 우리 편에는 한탄스러운 일이며 분한 일입니다.

신심은 자기 무명에 맞선 싸움

“귀하는 분명히 성급(性急)한 상(相)이 얼굴에 나타났느니라.” 즉 ‘성급은 성질이 우락부락하고, 화를 내기 쉬우며, 성미가 급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시조강고가 급한 성미가 느껴지는 생각에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 여유가 없이 늘 함성같은 표정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시조강고의 천성적인 본질을 찌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조강고는 틀림없이 강력한 성격으로 정의감에 가득 넘쳐 맹렬한 행동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예상과 다른 결과로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대성인은 그런 시조강고에게 “제천은 성급한 사람을 지키지 않는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성격으로 성불에 차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묘법에 비추면 어떤 성격도 빛나게 할 수 있고, 게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살려야 비로소 광선유포는 원융원만(圓融圓滿)하고 크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대성인이 굳이 강한 어조로 말씀한 까닭은 역시 시조강고의 ‘무명(無明)’을 물리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명’은 어두운 충동을 낳고, 나쁜 습성을 만들고 맙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가 인간혁명 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지닌 마음의 일황에 어떻게 정면으로 맞서고 성장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을 멈추지 않았을 때, 신심이 성장하며 경애가 확대됩니다. 스승은 제자가 크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엄하게 질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제자가 사랑스럽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의 생명에 잠재하는 마성을 부수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조강고의 기질이 화근이 되어 사태를 나쁘게 할 위험성이 높았습니다. 정의감이 강한 나머지 주위에 대한 배려를 잊어버리면 마찰이 생길 경우가 많습니다. 대성인은 거기에서 마의 세력이 파고들 틈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을 느꼈기 때문에 강하게 지도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조강고가 다른 사람의 표적이 되어 해를 당하기라도 한다면 기뻐하는 쪽은 적입니다. 한탄하는 쪽은 묘법을 믿는 동지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시조강고의 승리는 시조강고 한 사람만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 전체의 승리에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가르치며 아무쪼록 조심하여 신변의 안전을 피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본문 스순천황어서 1172 쪽14 행~1173 쪽1 행

귀하(貴下)는 성급(性急)한 사람이라서 아무도 받아들이시지 않으리라. 만약 그렇다면, 니치텐(日蓮)의 기원(祈願)도 힘이 미치지 어렵도다. 류조(龍象)와 귀하(貴下)의 형(兄)은 귀하에게 있어서는 악인(惡人)이었느니라. 하늘의 조처(措置)로서 귀하의 뜻대로 되었는데 어찌 하늘의 뜻을 배반(背反)하려고 생각하느냐. (중략) 일찍 서둘러 이 사인(四人)을 내 편으로 만들어 니치텐에게 알려 주사라. 그러면 강성(強盛)하게 천(天)에게 고(告)하리라.

[현대어역]

귀하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틀림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만일 그렇다면 니치렌이 기원해도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 류조보와 귀하의 형은 귀하에게 악인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의 계책으로 귀하가 버리던 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어째서 귀하는 제천의 뜻에 위배하려고 생각하는지요. (중략) 한시라도 빨리 아간에 순화하는 네 사람과 마음을 터놓기 바라며 그 결과를 니치렌에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천에게 강성히 기원하겠습니다.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을 세계가 대망

대성인은 여기까지 여러 가지로 거듭 지도하신 다음, 다시 한번 “귀하는 성급한 사람이라 틀림없이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내가 기원해도 힘이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쓰셨습니다. 대성인은 때때로 스승과 제자의 기원이 일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하 중에서 시조깡고만큼 목숨을 걸로 대성인을 지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저서 성급하게 행동하는 일은 신심을 근간으로 삼아 사제불이로 행동하던 자기를 잃고 어리석은 인간으로 돌아 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대성인이 기원해도 기원의 힘이 미치지 못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급하면 안 된다.”고 거듭 훈계하셨기에 시조깡고도 정신을 바짝 차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아간에 순화하는 네 사람과 사이 좋게 지내야 한다’고 지도하신 직후에 다시 한번 엄중히 말씀하신 점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 까닭은 바로 불법을 실천하는 데 ‘이체동삼과 사제불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빠지면 광선유포는 단절되어 버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어서 앞에서 말씀한 ‘아간에 순화하는 사람들과 사이 좋게 지낸다.’는 점에 관해 “결과를 니치렌에게 들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천에게 강성히 기원하겠습니다.”라고 쓰셨습니다. 이것은 개인지도의 급소입니다. 지도와 격려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한 사람도 마지막까지 철저히 기원해야 합니다. 대성인이 몸소 늘 그렇게 거듭 행동하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책임 있는 지도주의’를 내걸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격려하고 목표를 제시한 다음, 상대방과 자신이 ‘이인삼각’을 한다는 마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도한 사람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원합니다. 학회는 이런 정신으로 전진했기에 여기까지 발전했습니다. 대성인은 시조깡고와 주군 에마 씨 사이의 신뢰관계, 동료들의 중상과 참언에 이은 습격 위기, 큰 형의 적대, 다른 형제와 불화(不和), 일부 동지 간의 원질 등, 문제 하나하나를 걱정하며 손을 쓰셨습니다. 가족보다 더한 애정으로 시조깡고를 지키고 자애를 베풀며 이끌어 주시는 모습을 어서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하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소중히 한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불법의 인간주의입니다. ■

스순천황어서(崇峻天皇御書)(하) (삼종재보(三種財寶)어서)

‘마음의 재(財)가 제일’이 바로 인생을 승리하는 핵심 행동이!

본문(스순천황어서 1173 쪽 3 행~7 행)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것은 참수(斬首) 당하려 했을 때, 귀하(貴下)는 동행(同行)하여 말고삐를 잡고, 울면서 슬퍼하신 것을 어느 세상(世)엔들 있겠느냐. 설령 귀하의 죄(罪)가 깊어서 지옥(地獄)에 들어가신다면, 니치렌(日蓮)을 아무리 부처가 되라고 석가불(釋迦佛)이 권유(勸誘)하신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같이 지옥으로 가리라. 니치렌과 귀하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신다면 석가불, 법화경(法華經)도 반드시 지옥에 계실 것이로다. (중략) 만약 조금이라도 이 일을 아끼시고 나빠졌을 때 니치렌을 원망(怨望)하지 말지어다.

[현대어역]

왜냐하면 나도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은 내 목이 잘려 버렸을 때, 귀하가 함께 따라오셔서 말고삐를 붙잡고 울며 슬퍼하신 일입니다. 이 일은 어느 세상에서도 잊지 못합니다. 만일 귀하의 죄가 깊어서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석가불이 니치렌에게 아무리 “부처가 되라!”고 이끄셔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귀하와 같이 지옥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니치렌과 귀하가 함께 지옥에 들어가신다면, 석가불도 법화경도 틀림없이 지옥에 계실 것입니다. (중략) 만약 조금이라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을 아끼신다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니치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사제불이’의 원점을 잊지 마라

“막히면 원점으로 돌아가라.” 이는 초대 회장 마키구치 쓰네사부로 선생님이 밝히신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법화경의 근간은 ‘사제불이(師弟不二)’입니다. 니치렌불법은 사제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자의 원점은 스승과 공전(共戰)하겠다는 맹세에 있습니다. 항상 이 사제의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코 막히지 않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사제의 원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원점은 곧 다쓰노구치 법안에서 대성인이 처형장으로 연행될 때, 시조강고가 말고삐에 매달려 순교할 각오를 나타낸 일입니다. 대성인은 이때 보인 시조강고의 신심을 칭찬하며 “설령 만일 귀하가 지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면, 그 때는 아무리 석가불이 내게 ‘부처가 되라!’고 말해도 귀하와 함께 지옥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제자의 정성에 최대로 응하는 참으로 ‘인간의 종교인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극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묘법을 확신하는 스승 대성인과 제자 시조강고가 함께 지옥에 간다면 석가불과 법화경도 틀림없이 지옥에 계실 것이며, 그 곳은 이미 지옥이 아니라 불계임을 밝히셨습니다. 지옥즉적광(地獄即寂光)이라는 법리입니다. 니치렌대성인불법은 어떤 곳에서도 불계를 밟을 수 있습니다. 스승 마키구치 선생님과 제자 도다 선생님은 그 말씀을 몸으로 읽으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추위가 절정에 이른 옥중에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마음먹기 하나로 지옥에서도 즐거움이 있다.” 함께하신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설령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때는 지옥에 있는 중생을 절복해서 적광토로 만들겠다.” 이 자제가 신심의 핵심입니다.

시조강고가 대성인과 함께 싸우겠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 한, 지옥즉적광이라는 원리에 따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기 마음에 지고 성급하게 굴며, 주위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하면, ‘불이(不二)’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린 내용을 아낀다면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니치렌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법을 체현하고 흥통하는 스승의 ‘마음’과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합치시키는 일이 승리하는 핵심입니다. 그 까닭은 스승의 지도를 소홀히 하고,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험난한 불도수행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스승이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마라.”(어서 1088 쪽)입니다. ‘사제의 마음을 잊으면 일생성불 하지 못합니다.

본문 스승전행어서 1173 쪽 15 행~16 행

곳간의 재(財) 보다도 몸의 재가 뛰어나고,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제일(第一)이다. 이 글월을 보시고부터는 마음의 재를 쌓도록 하사라.

[현대어역]

‘곳간의 재’보다 ‘몸의 재’가 더 뛰어나다. ‘몸의 재’보다 ‘마음의 재’가 으뜸입니다. 이 편지를 보고 나서는 ‘마음의 재’를 쌓으세요.

끝까지 단련한 마음이 무상(無上)의 가치

이 어서 속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곳간의 재’는 물질적인 재산입니다. ‘몸의 재’는 건강이나 몸에 익힌 기능입니다. ‘마음의 재’는 어떤 면에서 말하면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신심’이며 신심으로 단련되는 ‘빛나는 불상’입니다.

이 구절에서 대성인은 세가지 ‘재’의 순서, 즉 명확한 가치기준을 밝히셨습니다. 이 때 시조강고는 소령물수리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물론 소령을 비롯한 재산이 생활양식으로서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곳간의 재’, ‘몸의 재’ 보다 ‘마음의 재’를 쌓는 일이 모든 일에 승리하는 근본입니다.

지금까지 시조강고가 신심근본으로 분투한 일은 ‘마음의 재가 제일’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첫걸음은 승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인은 굳이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승리지침으로서 여기에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재’를 근본으로 했을 때, 실은 ‘곳간의 재’도 ‘몸의 재’도 진실한 가치를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마음의 재’를 구축한다’는 인생의 근본목적이 중요합니다. 설령 ‘곳간의 재’나 ‘몸의 재’를 지녔어도 이 근본목적을 상실하면 재보에 대한 집착이 생깁니다. 그 재보들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도 이어지며 오히려 괴로운 원인이 됩니다. ‘마음의 재’를 쌓는 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는 곳에 올바른 인생의 목적관이 있습니다.

본문 스승전행어서 1174 쪽 14 행~15 행

일대(一代)의 간심(肝心)은 법화경(法華經), 법화경의 수행(修行)의 간심은 불경품(不輕品)입니다. 불경보살(不輕菩薩)이 사람을 존경(尊敬)한 것은 어떠한 일이고, 교주석존(教主釋尊)의 출세(出世)의 본회(本會)는 사람의 행동(行動)에 있었소이다. 황송(惶悚)하오, 황송하오. 현명(賢明)함을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음을 축(畜)이라 하느니라.

[현대어역]

석존 일대의 간심은 법화경이며 법화경 수행의 간심은 불경품입니다. 불경보살이 사람을 존경한 일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교주석존이 출세한 본회는 사람의 행동을 밝히는 일에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잘 들으세요. 현명함을 사람이라 하고, 어리석음을 축생이라 합니다.

‘사람의 행동’이 불법의 근본목적

대성인은 석존 일대의 가르침의 핵심은 법화경이며 법화경을 수행하는 진수는 불경품이고, 불경품에서 끝까지 모든 사람의 불성을 믿고 예배를 계속했다고 설하는 불경보살의 행동에 이 어서의 결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적인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이 부처다.”라는 진리를 깊이 신혜(信解)하고, 어떤 박해를 만날지라도 모든 사람을 계속 예배한 불경보살의 행동이 바로 법화경 정신을 체현한 모습입니다.

법화경은 석존이 ‘출세한 본회(부처가 이세상에 출현한 근본목적)’를 밝힌 경전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법화경 정신을 체현하는 불경보살의 실천을 설한 의미는 석존이 출세한 본회가 ‘사람의 행동’을 밝히는 일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법은 스스로 흥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흥통하는 고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하니라.” (아서 856 쪽)고 말씀하시듯, ‘법은 결국 ‘사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존귀함이 알려지고 흥통됩니다. ‘마음의 재’라 할지라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비로소 ‘마음의 재’가 묘법과 불성의 힘을 사람들에게 밝힐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재가 제일”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느냐 하는 가치관을 밝힌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은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불법자(佛法者)의 행동 규범을 밝힌 말씀입니다. 불경보살이 보인 모든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은 만인성불이라는 부처의 진의를 설하는 법화경 사상을 체현한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불경보살이 실천한 ‘사람을 존경하는 행동’은 바로 부처의 진의입니다.

묘법을 믿고 불성을 나타낸다는 묘법의 공덕을 몸으로 체현한 ‘사람의 행동’이 바로 묘법의 존귀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묘법의 공덕을 몸으로 나타낸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사람을 존경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